기종이는 어떤 아이인가요?

별명: 시궁창
본명: 신기종
가족: 누나
취미: 개미 죽이며 전쟁놀이 하기 (혼자 놀기)
특기: 상상력이 풍부
특징: 추접스럽다, 형 부모가 없으면서 있는 척, 전쟁 용어 사용 하기 좋아함, 싸움이 인생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두려우면 숨는다, 검은제비(5학년)를 무서워 함, 삼촌(베트남 전 참전)을 자랑스러워함.

여민이는 아버지의 선의가 악하게 이용되는 것을 목격합니다.

51쪽
여자는 아버지가 물을 길어 올 때까지 일부러 미적거리기도하고, 공연히 눈에 띄게 물통을 쿵쾅거리기도 했다. 심지어 아버지가 듣게끔 노골적으로 중얼거리기도 했다.
“아이, 물독은 텅 비었는데, 언제 저 아래까지 가서 물을 길어 온담!”

가난한 사람이 구걸하는 것을 본 적 있나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했나요? 동정을 베풀고도 마음이 불편한 적이 없나요? 있다면 왜 그랬는지 나누어 봅시다.

그렇다면 가난한 사람을 도와서는 안된다는 말인가요?

아니요, Working Not Begging 이라는 말이지요. 돈을 주기 보다는 일자리를 주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돕느냐의 문제이겠지요?

취로사업이란?
영세근로자의 생계를 돕기 위해 정부에서 실시하는 공공 근로사업.
장점: 많은 실업자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 제공
단점: 국가 예산이 낭비된다, 쓸데 없는 곳에 예산을 낭비한다. 자신의 취업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한다. 지속적으로 (10년 이상) 특정 개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회적 기업이란?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이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자신의 가치를 깨닫게 해 주는 기회를 제공한다.
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기쁨을 알게해 준다. 남들과 동등한 노동의 댓가를 알게해 준다.